FEBRUARY 2023

뉴저지 초대교회

자녀를 위한 순예배

부모와 자녀세대를 연결하는 신앙적 소통 만들기

교회와 성도들의 교제

사도행전 2:42-47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고린도전서 1:9)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대로 성령님이 믿는 자들에게 임하여 오셨을때에 비로소 교회는 시작되었어요. 믿는이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을때 성령님은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건, 각자 자기 방에서 혼자서 따로 따로 기도했을때 오시지 않았다는거에요. 모두가 다 같이 함께 모여 기도한 자리에 임하셨어요. 믿는이들의 공동체, 그리스말로 코이노니아라고도 불리는 이 교회의 공동체는 함께였을때 시작했어요.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때, 사람들은 매일 매일 만나 함께 기도하고 빵을 함께 떼어먹고, 서로 가진것들을 나누었어요. 더 가진 사람들은 주었고, 덜 가졌던 사람들은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엔 모두가 같은 분량을 가졌어요.

오늘날 우리들 교회에도 사람들이 참 많아요. 모두가 가진것들이 다르고, 또 힘들어하고 있는 문제들도 각종각색이에요.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때처럼 우리들 중에는 더 가진 사람도 있고, 덜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가지 문제들로 힘들어해요. 관계와 가정문제로,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더 가진것들은 나누고, 덜 가진것들을 받으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우리가 서로의 짐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덜어줄때에, 또한 우리의 가진 물건들을 함께 나눌때에 우리는 결국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어떤것도 부족하지 않을거에요.

그런데 이 모든것이 시작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먼저 시작되어야 해요. 함께 예배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해요.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예배의 자리로 서로를 이끌고 나아갈때에 하나가 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거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는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러하시듯 우리도 함께 교통하고 나눌때에 하나님을 닮아갈거에요!

FAMILY ACTIVITY

"CHURCH IN CAPILARY ACTION"

Prepare: 7개의 물컵, **food coloring**, 페이퍼 타월

1. 7개의 컵에 물을 준비합니다. **1**번, **3**번, **5**번, **7**번의 컵에 물을 가득 담습니다. **2**번, **4**번,**6**번은 빈컵으로 준비합니다.

2. 컵에 **food coloring**을 넣어주세요

컵 **1**번과 **7**번에**5-10**드랍의 빨강을 넣어주세요

컵 **3**번에 **15**드랍의 노랑을 넣어주세요

컵 **5**번에 **5-10**드랍의 파랑을 넣어주세요

3. 페이퍼타월을 접고 접어서 길죽하게 만들어준 후, 컵과 컵 사이를 연결하듯 담가주세요. 모든 컵 사이 사이에 페이퍼 타월을 연결하여 담아주세요.

4. 이제 기다리면서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될거라고 말해주세요. 페이퍼 타월은 성령님이고, 물컵은 우리들인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서로에게 움직이신다고 말합니다.

5. 비어있던 컵에 물이 움직여서 모든 컵이 똑같은 양의 물을 가지게 됩니다. 물이 움직였어요!

페이퍼타월은 성령님이고 물이 담긴 컵들은 우리들이에요. 각자의 색깔이 다르듯 우리들은 모두 각종 다른 것들을 소유하고 있고, 또 다른 문제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가 함께 통하기 원하세요.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가진것들을 서로 나누고 공유하게 되고 결국 하나가 됩니다. 동일한 마음을 가진 하나가 되지만 또한 아름다운 무지개처럼 빛날거에요!

TALK

1.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베푼적이 있나요? 내가 도움이 필요할때 누군가에게서 도움을 받은적은 있나요?
2. 많은 성도들이 있는 공동체에서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돌보고 도와주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3. 기도 가운데 함께 서로의 짐을 나누고 중보하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CONCLUSION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매일 매일 더더욱 개인적으로 변해가는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의 일만 돌보는것에 익숙해지고, 도움을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는것이 편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만드신 교회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라요. 하나님 본인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늘 서로 함께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이신 모습으로 있으세요. 관계맺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세요. 그렇기에 창조물인 우리와도 관계를 맺으시죠. 우리들 또한 하나님을 닮아 서로 교제를 맺고 함께 교통하고 소통하며 살기 원하세요. 이것을 위해 공동체를 주셨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 음식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돌보고 가진것들을 나누기 시작할때 우리는 공동체안에서만 역사하여 보여주시는 기적들을 경험하기 시작할거에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일들을 위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ENDING PRAYER

하나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우리 삶가운데 허락하신 사람들을 돌보게 해주세요. 우리 공동체 안에 속해있는 형제 자매들의 필요와 어려움들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의 필요와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고 기도와 도움을 받기에 필요한 겸손함과 용기또한 허락해주세요. 살아있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이 안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고 하나가 되는 기적을 맛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